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 주 석 박 기 산 김 예 인 최 희 락 신 성 만[†]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위스콘신대학교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항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4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대인존재감 척도,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20.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와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대인존재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대인관계 유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존재감이 완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Shaffer의 중독증후군 모델을 반영하여 구조 모형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을 밝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존재감, 스마트폰 중독

* 본 연구의 일부는 2017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성만,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375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 Tel: 054-260-1333, E-mail: sshin@handong.edu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빠르고 깊숙이 침투하여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성능과 통신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정보검색, 경제생활, 시간관리부터 신체 및 정서관리, 대인관계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기로 진화하였다. 2017년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의 비율이 87.8%에 이를 만큼 사용률의 확산 및 보급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한편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과 사용자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실제로 국내 2017년 기준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은 18.6%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아직까지 단일화된 개념적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저성, 충동 및 강박적 사용, 금단, 내성, 문제(신체적, 비행, 일탈), 대인 간 갈등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개념화되며(김동일, 정여주, 이윤희, 김병관, 전호정, 2016), Griffiths(2005)가 제시한 중독의 6가지 요인에 부합하는 일종의 행동 중독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종환, 임종민, 손한백, 곽호완과 장문선(2016)은 Griffiths의 행동중독을 근거로 스마트폰 중독을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스마트폰을 충동 및 강박적으로 사용할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몰두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정의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의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낮은 자기통제, 우울, 충동성, 공격성, 자아존중감 저하, 자살생각과 같은 심리 내적 변인 뿐만 아니라(김병년, 고은정, 최홍일, 2013; 신연섭, 이봉건 2016; 장선희, 2015; 정숙희, 김재영, 류수정,

신성만, 2015)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만족도, 가족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대인관계만족도와 같은 사회 및 관계적 측면의 여러 변인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유태정, 김석선, 2015; 박명준, 신성만, 2014; 안주아, 2016; 장혜진, 전영자 2016; 한가희, 이인혜, 2016).

스마트폰 중독 현상은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의 대인관계의 범위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의 관계까지 포함하게 되었고(한자연, 2017), 특히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급격한 사용의 증가로 인해 온라인 기반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대되었다(남순현, 양은주, 권정혜, 2013). 또한 스마트폰 중독은 매체중심적인 특성을 가지는 인터넷 중독과는 달리 대인관계 지향적 어플리케이션 이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상호작용의 극대화를 특징으로 한다(박성복, 황하성,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의 주 이용 콘텐츠 1위가 대인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메신저(95.2%)였으며,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95.5%가 메신저를 주 이용 콘텐츠로 활용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스마트폰 중독은 현실도피 보다는 자기과시, 체면 차리기, 인정과 같은 관계적 문제에 대한 동기로 시작되며(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59.6%(대학생 61.7%)가 ‘스마트폰만한 친구가 없다’는 올바르게 못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은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며(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2), 현실에서의 관계성이 저하된 사람일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된다(이지혜, 2012). 현실과는

다른 자기감과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좌절된 관계성을 충족시킨다고 보고한 정민선, 김현미와 권현용(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관계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다루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뉴미디어의 채택과 수용은 개혁성이 높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윤해진, 2009) 대학생 집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은 스마트폰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민감성을 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스마트폰의 이점을 잘 활용하면서도(최현, 2018)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고위험군은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23.6%, 3.6%이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대학생들은 지각된 스트레스, 외로움,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측면에서부터 학업 성취도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an & Leung, 2015; Demirci, Akgonul, & Akpinar, 2015; Samaha & Hawi, 2016). 대학생의 경우 주로 관계적 측면의 SNS 사용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박순주, 권민아, 백민주, 한나라, 2014), 중독 정도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타인과의 좋은 관계와 소속감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기인, 2013). 문의용과 김택호(201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은 소속감과 외로움 충족을 위해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발달시기와 연관되어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중, 고등학교에 지속되어 왔던

대인관계의 형태에서부터 벗어나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김현진, 한종철, 2004; 한가희, 이인혜, 2016). 이전보다 확대된 사회 관계망 속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형태로 대인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보다 많은 노력과 도전적 경험이 요구된다(안선경, 정여주, 2016). Erikson(1963)은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대학생 시기를 초기 성인기 단계로 상정하고 중요한 성취과업을 관계의 친밀감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이라고 보았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자신감을 비롯한 긍정적 특성을 얻고 향후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반면, 친밀감의 과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고립감과 외로움 등의 부정적 특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손병덕, 성문주, 백은령, 이은미, 최은화, 정정호, 송현아, 2017).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어느 발달단계보다 개인의 성장과 안녕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생 중 상당수는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이 직면하는 문제 중에서 대인관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김성희, 박경희, 2010), 대학생 상담에서도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학, 조영아, 2006; 서강상담연구, 2016). 따라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능성(competence) 혹은 능력(ability)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되어왔다(김희은, 2014; 박선하 유형근, 2018).

그 중에서도, 대인관계 유능성(혹은 대인관계 능력)은 타인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

고 지속시키는 능력이다(Spitzberg & Cupach, 1989; 배성만, 2015). Spitzberg와 Cupach(1989)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효과성(effectiveness)과 적절성(appropriate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효과성이 대인관계를 통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하는 것이라면, 적절성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여 기대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한나리, 이동귀 2010).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1988)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개시, 자신의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개인적인 정보의 개방,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적 지지 그리고 갈등 관리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한나리와 이동귀(2010)의 한국 대학생 대상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 유능성의 영역 중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자기개방은 새로운 구성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계 중심적 사회맥락 속에서 보다 타인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대인존재감(윤하은, 2018), 대인관계 만족도(구승희, 이영순, 2011), 또래관계의 질(Chow, Ruhl, & Buhrmester, 2013)과 같은 대인관계 측면의 변인과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계중독, 사회적 공격성,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적응적 행동과의 연관성이 밝혀져 왔다(Bell, McGhee, & Duffey, 1986; Koesten & Anderson, 2004; Nelson, Hammen, Daley, Burge, & Davila, 2001; 김진희, 2017).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강현임, 이영란, 황주희, 2017; 박순주, 권민아, 백민주, 한나라 2014; 성미현, 남혜리, 2017; 손

미라, 2018; 장여옥, 2017). 특히, 강현임, 이영란과 황주희(2017)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의 차이 및 대인관계 유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관계를 밝혔고, 손미라(2018)는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이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했다.

한편, 대학생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라는 발달단계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Arnett, 2007). 최근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증가와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늘어나면서 20대는 자아정체성 및 역할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김은정, 2014). 다시 말해, 초기 성인기는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재인식되고 있다(Arnett, 2000).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관계를 고려할 때 자기개념에 관한 구인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인존재감이라는 변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인존재감은 대인관계를 고려한 자기인식적 구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인식을 말한다(Rayle, 2005; Elliott, Kao, & Grant, 2004). 대인존재감이 관계적인 자기(relational self)나 사회적인 자기(social self)에서 중요한 측면을 반영하는 만큼(Rosenberg & McCullough, 1981) 개인을 사회의 한 부분, 즉 관계-맥락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한국 문화에서는(최상진, 김기범, 1999) 대인존재감이 적합한 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Elliott, Kao와 Grant(2004)는 대인존재감 구성요소를 알아봄(awareness), 중요함(importance), 의지(reliance)로

두었으나, 최한나와 임윤선(2013)은 타당화 논문을 통해 한국판 대인존재감이 알아봄, 상호의지, 관심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인존재감은 우울이나 완벽주의, 사회 불안과 같은 심리내적 측면에서부터 대학생활적응, 군생활적응, 대인관계능력, 집단따돌림, 가족 내 폭력 행동 및 자살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옥란, 김완일, 2015; 송가미, 박희현, 2016; 이경미, 조한익, 정기수, 2015; 이연규, 최한나 2013; 차미희, 2013; Elliott, Cunningham, Colangelo, & Gelles, 2011; Thomas, 2011; Rosenberg & McCullough 1981). 더불어 대인존재감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두 변인간의 관계는 서로 상반된 연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송가미와 박희현(2016) 그리고 윤하은(2018)은 대인존재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던 반면, Swann(1983)은 대인관계로부터 얻어진 유능감이나 능력 등이 자아확증(self-verification)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대인존재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대인관계 유능성 자체에 초점을 두었고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발생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대인존재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대인존재감과 자아존중감은 ‘심리 내적 자기 신념에 대한 구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최한나, 임윤선, 2013). 특히 Rosenberg(1965)는 중요한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정서(대인존재감)가 자기 가치의 마음(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데 핵심이라고 보았으며, 자아존중감과 대인존재감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어왔다(Rosenberg & McCullough, 1981; Taylor & Turner, 2001).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환경과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지만(신성만, 김주은, 오중현, 구충성, 2011), 대인존재감은 자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측면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구별점을 가진다(임윤선, 2013). 따라서 대인존재감은 자아존중감과 같이 자기개념에 관한 구인임과 동시에 대인관계에 대한 측면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대인관계적 구인을 행동중독 문제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만을 중요한 내적 구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Young과 Rogers(1998)는 현실 세계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 개인은 자아존중감을 채우기 위해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경향을 보고하였고, Niemz, Griffiths와 Banyard(2005)는 병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탈억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장선희(201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관계성이 스마트폰 중독과는 부적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문의용과 김택호(2014)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외로움과 또래 소속감 충족을 위해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반면, 대인존재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는 아직 시행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lliot(2009)이 가족과의 대인존재감이 폭

음, 그리고 불법 약물의 지나친 사용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임을 검증함으로써 일반 중독문제를 다루었다. 일반적인 중독 문제가 행동중독 문제로의 연구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과(Griffiths, 2005) 대학생이 주로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아존재감을 대신하여 대인존재감을 스마트폰 중독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하면, 성인 모색기라는 새로운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대인관계 문제와 자기 개념 문제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대인존재감의 역할을 대인관계 유능성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Shaffer의 중독 증후군 모델을 통해 대인관계 유능성,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대인존재감의 관계를 추론하였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인관계 유능성과 대인존재감으로 상정하고 중독 발생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Shaffer 등(2004)은 중독 증후군 모델을 통해 물질중독뿐만 아니라 행동중독 영역을 포함하는 여러 중독 현상이 단일한 중독 증후군에서 기인했다

고 보았기 때문에 기존 물질중독에 국한되었던 중독의 범위를 행동중독으로 확장시켰고, 중독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이종환 외, 2016).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모형은 총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간접선행요인 단계로, 심리사회적 요인이나 신경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여 기저 취약성이 발생하는데, 이는 심리사회적 요인이나 신경생물학적 요인보다 기저에서 작동하는 본질적인 영향요인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단계는 발병 전 증후군 단계로 중독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때, 근접 선행요인은 반복적 현상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 단계는 중독 증후군의 발병 및 발현 단계이며 특정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 연구 모형이 Shaffer의 중독 증후군 모델을 적용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론의 저작자에게 직접 메일로 질의 요청을 하였다. 답변을 통해, 중독 증후군 이론으로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낮은 대인관계유능성과 낮은 대인존재감을 각각 심리사회적 위험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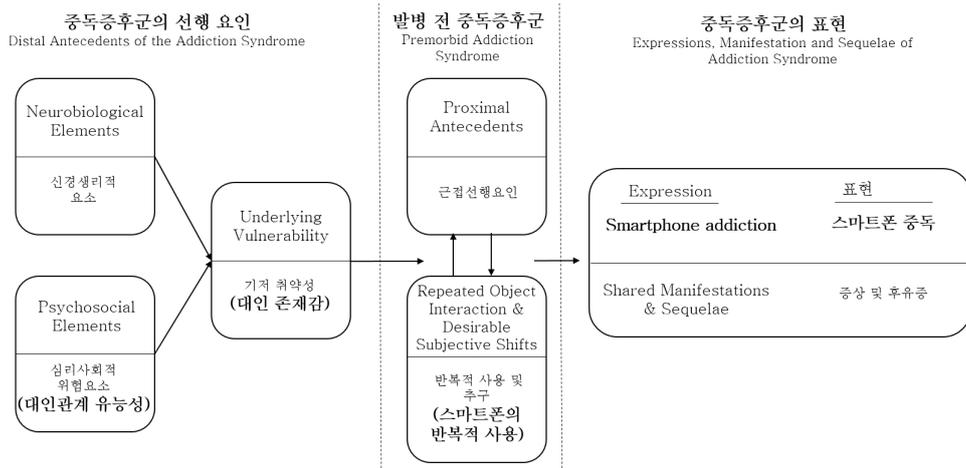


그림 1. Shaffer et al. (2004)의 중독 증후군 모델

및 기저 취약성 변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검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로, 간접선행요인 단계에서 심리사회적 요소(psychosocial factor)로 대인관계 유능성의 저하가 발생한다. 즉,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타인과 관계를 맺기에 충분한 대인관계 능력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 증후군 발생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소는 기저 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로, 기저 취약성을 낮은 대인존재감으로 상정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저하되는 경우,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보다 내적인 인식이 나타나게 되며 심리적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저 취약성의 발현에 기인하여 발병 전 증후군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 및 대인존재감의 저하, 그리고 여러 근접선행요인의 영향으로 반복적 스마트폰 사용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 및 심화되면 중독 증후군으로 발전될 수 있다. 셋째로, 중독 증후군의 발병 및 발현 단계에 이르러 스마트폰 중독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haffer의 중독 증후군 모델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유능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대인존재감이 매개할 것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북 포항에 위치한 P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442명에게 설문

실시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결측치 12부를 제외한 430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30명 중, 남학생은 160명(37.2%), 여학생은 270명(62.8%)로 여학생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0.59세($SD = 1.869$)이었으며, 1학년 138명, 2학년 158명, 3학년 96명, 4학년 38명으로 나타났다. 일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가 12명(2.8%), 1-2시간이 69명(16%), 2-3시간이 133명(30.9%), 3-4시간이 100명(23.3%), 4-5시간이 69명(16%), 5시간 이상이 46명(10.7%)이며, 결측값은 1명(0.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포를 살펴보면 고위험 사용자군은 25명(5.81%),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108명(25.12%), 일반 사용자군이 297명(69.07%)으로 확인되었다.

측정 도구

스마트폰 중독(성인 스마트폰 중독 척도: S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이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척도(S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하위 요인으로는 일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이며, 역채점 문항은 총 3개이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역문항을 고려하여 합산하였을 때 총점이 클수록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측정된 점수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구분된다.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는 .81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일상생활장애 .87,

가상세계지향성 .69, 금단 .80, 내성 .8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전체 Cronbach's alpha는 .89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일상생활장애 .79, 가상세계지향성 .52, 금단 .80, 내성 .80으로 나타났다. 내적 일치도가 최소 .60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연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루어보아(채서일, 2004) 본 척도의 하위요인 중 가상세계 지향성은 내적 일치도가 .51로 기준치보다 낮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인존재감(Korean version of Mattering Scale)

본 연구에서는 대인존재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Elliott 등(2004)이 개발하고 최한나와 임윤선(2013)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존재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진 본 척도는 알아봄 7문항, 상호의지 7문항, 관심 4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역채점 문항을 고려하여 합산한 전체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존재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한나와 임윤선(2013)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92였고, 하위요인별로는 알아봄 .87, 상호의지 .87, 관심 .8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대인존재감 척도 전체의 Cronbach's alpha는 .87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알아봄 .83, 상호의지 .76, 관심 .76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K-ICQ)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고자 Buhrmester 등(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K-ICQ)를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관계 형성 및 개시 8문항,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 갈등 관리 6문항, 적절한 자기 개방 3문항을 포함하여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1= 잘 못한다, 5=매우 잘한다)까지 응답가능하며 역문항은 없다. 각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나리와 이동귀(2010)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8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관계 형성 및 개시 .90,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83, 타인에 대한 배려 .78, 갈등관리 .74, 적절한 자기개방 .6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전체의 Cronbach's alpha는 .91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관계 형성 및 개시 .87,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84, 타인에 대한 배려 .82, 갈등관리 .79, 적절한 자기개방 .69로 보고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본 척도의 하위요인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갈등관리 하위요인의 문항들이 모두 반영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454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5이상일 때 최소 기준치에 부합하므로(우종필, 2012), 이후 분석에서는 갈등관리를 제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 및 이후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

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규분포성 확인과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존재감,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변인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였다. 셋째,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χ^2 , CFI, TLI, RMSEA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의 직간접효과를 살펴보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결 과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에 앞서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통해 정규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기술통계 분석 (N = 4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80**												
3	.73**	.46**											
4	.79**	.48**	.42**										
5	.66**	.49**	.44**	.41**									
6	.59**	.56**	.35**	.53**	.34**								
7	.48**	.51**	.30**	.37**	.31**	.86**							
8	.53**	.46**	.27**	.54**	.28**	.79**	.44**						
9	.40**	.34**	.27**	.36**	.20**	.77**	.56**	.45**					
10	-.17**	-.11*	-.10*	-.12*	-.12*	-.15**	-.18**	-.07	-.08				
11	-.14**	-.08	-.09	-.11*	-.07	-.07	-.10*	-.04	-.02	.88**			
12	-.14**	-.09	-.10*	-.07	-.11*	-.16**	-.19**	-.06	-.12*	.80**	.49**		
13	-.11*	-.11*	-.04	-.05	-.09	-.08	-.12*	-.03	-.01	.87**	.76**	.53**	
평균	3.32	3.24	3.01	3.70	2.87	3.86	3.93	3.56	4.28	2.22	2.35	2.00	2.61
SD	0.53	0.79	0.80	0.62	0.91	0.44	0.58	0.49	0.57	0.49	0.59	0.61	0.62
왜도	-0.01	-0.42	-0.14	-0.30	-0.02	-0.36	-0.37	-0.16	-0.84	-0.27	-0.15	0.34	-0.49
첨도	0.05	-0.27	-0.42	-0.05	-0.62	0.67	0.33	0.27	0.95	0.10	0.02	0.12	0.29

** $p < .01$ * $p < .05$

주 1=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 2= 관계형성 및 개시 3=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4= 타인에 대한 배려 5= 적절한 자기개방 6= 대인존재감 전체 7= 알아봄 8= 상호의지 9= 관심 10= 스마트폰 중독 전체 11= 일상생활장애 12= 금단 13= 내성

분포성 가정을 만족시키지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3과 7 이하로 정규 분포 성립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DeCarlo, 1997). 그리고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우종필(2012)이 제시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산 방법’을 사용하여 선행연구자가 제시한 하위요인들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검증한 후에 문항묶음을 하였고, 평균 점수를 산출한 뒤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유능성과 부적 상관($r = -.17, p < .01$), 대인존재감과 부적상관 ($r = -.15, p < .01$)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

인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존재감, 스마트폰 중독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두 단계 검증방식을 이용하여 표 2와 같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chi^2(32, N = 430) = 122.199, p < .001$; CFI = .939; TLI = .914; RMSEA = .081 [90% CI = .066 - .097]로 나타났다. CFI와 TLI는 증분 적합지수로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양호, .80 이상이면 보통으로 간주한다. RMSEA는 절대 적합지수로 일반적으로 .05 이하면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08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1 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간주한다(Browne & Cudeck, 1993; Chen, 2012). 본 연구에서의 RMSEA 값이 .081로 보통 수치였고, CFI, TLI 값 역시 각각 .939와 .91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모델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측정변인에 관한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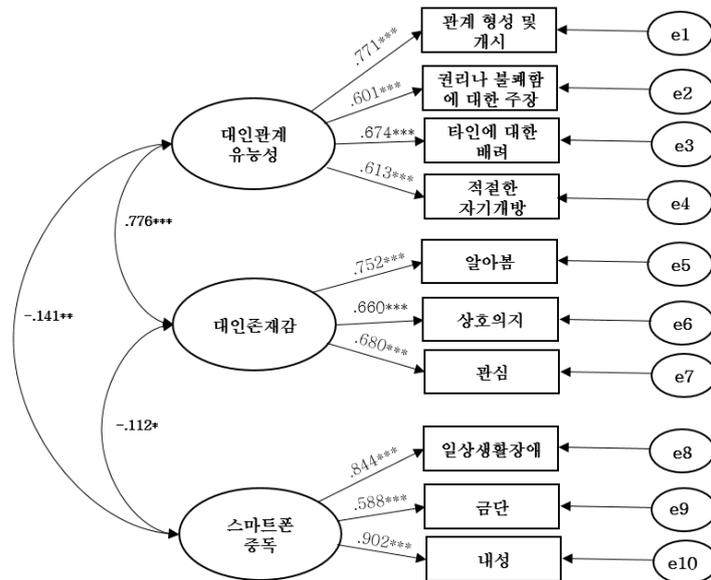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측정변인	B	S.E	β	C.R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 형성 및 개시	1.000	-	.771	-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92	.071	.601	11.149***
	타인에 대한 배려	.684	.055	.674	12.390***
대인존재감	적절한 자기개방	.916	.081	.613	11.366***
	알아봄	1.000	-	.752	-
	상호의지	.741	.064	.660	11.539***
스마트폰 중독	관심	.889	.075	.680	11.797***
	일상생활 장애	1.000	-	.844	-
	금단	.716	.058	.588	12.345***
	내성	1.110	.072	.902	15.465***

표 3.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N = 430)

	χ^2	df	CFI	TLI	RMSEA (90% CI)
측정 모형	122.199	32	.939	.914	.081 (.066 - .097)

회된 요인부하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계수를 확인하였다.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은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은 .613-.771, 대인존재감이 .660-.752, 스마트폰 중독이 .588-.902로 나타났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는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검증

대인관계 유능성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대인존재감이 완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모형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직접 경로를 추가한 경쟁모형에 대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이 대인관계 유능성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대인존재감이 완전매개하고 있는 모형이다. 경쟁 모형은 그림 4와 같이 대인관계 유능성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대인존재감이 부분매개하고 있는 모형이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완전매개 모형인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에서는, CFI와 TLI은 대체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고, RMSEA도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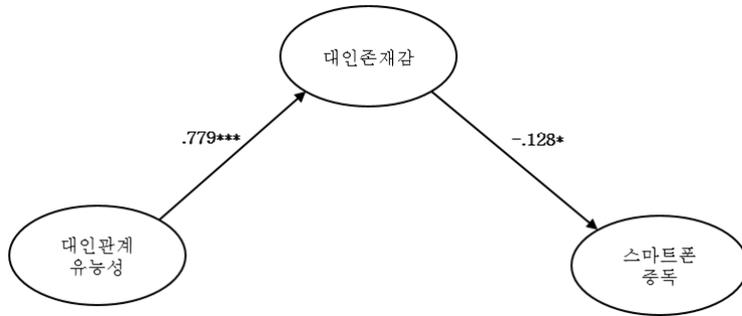


그림 3. 연구 모형 (완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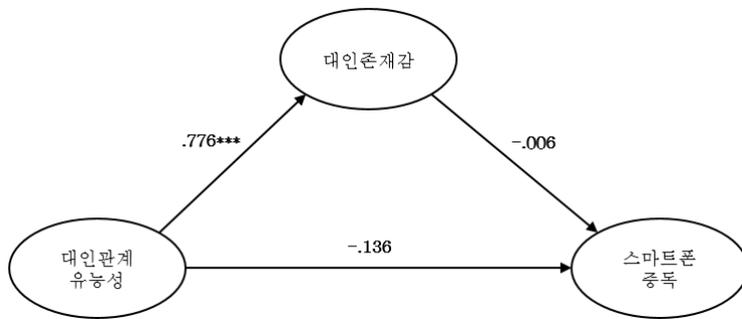


그림 4. 경쟁 모형 (부분매개모형)

표 4.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과 경쟁모형(부분매개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CI)
연구 모형	123.445	33	.939	.916	.080 (.065 - .095)
경쟁 모형	122.199	32	.939	.914	.081 (.066 - .097)

다($\chi^2(33, N = 430) = 123.445, p < .001$; CFI = .939; TLI = .916; RMSEA = .080 [90% CI = .065 -.095]). 다음으로 부분매개모형인 경쟁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에서는, CFI와 TLI는 양호의 적합도 수준을 보였고, RMSEA는 보통 정도의 적합도를 보였다($\chi^2(32, N = 430) =$

122.199, $p < .001$; CFI = .939; TLI = .914; RMSEA = .081 [90% CI = .066 -.097]). 적합도 검증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났고, 적합도 지수도 모형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 선택을 위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

표 5. 최종모형(완전매개모형)의 이론 변인 및 측정변인의 경로계수

측정 변인 간 경로계수	B	S.E	β	t
대인관계 유능성 → 대인존재감	.558	.050	.779	11.081***
대인존재감 → 스마트폰 중독	-.148	.067	-.128	-2.212*

*** $p < .001$ * $p < .05$

였다. 검증 결과, 두 모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Delta\chi^2(1, N = 430) = 1.246, p > .05$). 두 모델 사이에 자유도가 1만큼 변화함에 따라 변화량이 $3.84(p < .05)$ 이하로 나타날 때, 더 간단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간결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Holmbeck, 1997; 이학식, 임지훈, 2008), 적합도 검증에 있어서는 연구모형이 더 적절하였다. 또한 경로계수를 추정된 결과, 연구모형의 경우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대인존재감($\beta=.779, p<.001$), 대인존재감에서 스마트폰 중독($\beta=-.128, p<.05$)으로 가는 경로계수의 방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쟁모형의 경우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대인존재감($\beta=.776, p<.001$)으로 가는 경로계수의 방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대인존재감에서 스마트폰 중독($\beta=-.006, p>.05$),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스마트폰 중독($\beta=-.136, p>.05$)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경쟁모형의 간접효과 크기도 $-.004(-.162\sim.214)$ 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5$). 따라서 모형 검증의 설명력,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경로계수의 유의성 및 모형의 간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검증

대인관계 유능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총효과는 간접효과 크기인 $-.083$ 이었다.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통해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횟수 2500번을 시행하여 95%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05$ 유의확률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경로계수는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83(-.173\sim-.002)$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서 자료를 수집

표 6.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간접효과	Bias-corrected
대인관계 유능성 → 대인존재감 → 스마트폰 중독	-.083	-.173 ~ -.002*

* $p < .05$

하였고 대인관계 유능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통하여 모형 적합도와 변인 간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대인존재감을 완전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대인관계 유능성은 대인존재감을 낮추고, 대인존재감의 결여가 나타날 때 스마트폰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의의와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Shaffer의 중독 증후군 모델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적 특징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을 구조모형을 통해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affer의 중독 증후군 모델에서 심리사회적 위험요소를 낮춘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기저 취약성을 낮춘 대인존재감으로 상정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부정적 자기인식을 갖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 되면 스마트폰 중독이 발현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스마트폰 관련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나 구조모형을 활용하였을지라도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중독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닌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중독 증후군 모델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유능성과 대인존재감을 스마트폰 중독 발생 과정의 변인으로 상정함으로써 이론적인 바탕을 확보하였고, 구조모형을 통하여 중독 문제의 발생경로를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발달과정 시기를 Erikson이 제시한 성인기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Arnett의 성인 모색기라는 개념으로 함께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유입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청소년 및 청년기의 발달과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대학생을 포함한 20대가 자아정체성 탐색의 시기로 학업, 기업, 인간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기 위한 탐색 과정을 거처나가는 시기로 간주되는 만큼(김은정, 2014) 대인관계에 있어 자기인식적 구인에 대한 측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대학생 시기에는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능력이나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수행을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대학생을 초기 성인기의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한 특성에 국한시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대인관계를 통한 자기정체성 형성 및 자기 인식적 측면을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대인존재감과 중독 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이 본 연구의 큰 특징으로 보인다. 대인존재감은 극단적 행동에 있어서 주로 자살 사고나 폭력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Elliott et al., 2011; Thomas, 2011). 이는 특수한 대상에게 미치는 한정적인 영향력이기 때문에 대인존재감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영역에서의 연구만이 진행되었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문제적 행동과의 연구는 주로 해외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집단따돌림(이경미, 조한

익, 정기수, 2015), 군생활적응(김옥란, 김완일, 2015), 대학생활적응(정윤미, 김완일, 2016)과 같이 집단 내 적응과 관련된 변인이나 심리내적인 변인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독 증후군 모형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독 발생 과정에서 대인존재감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중독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던 반면, 대인존재감은 대인관계에 관한 자기구인적 특징을 더 잘 나타내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무른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중독 연구에서 대인관계에 관해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변인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심리 및 상담 분야에서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로써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 대인관계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중심 심리치료나 집단상담 등을 통해 대인관계 유능성을 증진시키고, 관계 맥락에서의 부적응적인 자기인식의 개선을 돕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특정 도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 내적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변인인 가상세계 지향성의 신뢰도가 .51로 나타나 해당 변인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한 것이 제한점으로 여겨진다. 비록, 박명준과 신성만(2014)의 연구에서도 가상세계 지향성의 낮은 내적 신뢰도로 인해 해당 변인을 제외하였지만, 보다 면밀하게 스마트폰 중독을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인 갈등관리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5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가 타당도 및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구성 개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성별, 학년, 종교,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등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현임, 이영란과 황주희(2017)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성별을 구분하여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 및 발전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현임, 이영란, 황주희 (2017). 대학생의 대인

- 관계 유능성과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독범죄학회보, 7(2), 1-23.
- 구승희, 이영순 (2011). 대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 대학생활 적응 및 대인관계 만족도간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3(2), 17-37.
- 김동일, 정여주, 이윤희, 김병관, 전호정 (2016).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7(3), 319-335.
- 김병년, 고은정, 최홍일 (2013).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3), 67-98.
- 김성희, 박경희 (2010). 대학상담: 대학생 대인관계조화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1(1), 375-393.
- 김옥란, 김완일 (2015). 군 병사의 자기복잡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59-181.
- 김은정 (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 단계로서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201, 17(3), 83-129.
- 김진희 (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 유형과 이성관계: 관계중독, 친밀감 두려움, 대인관계 유능성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4) 911-929.
- 김현진, 한종철 (2004).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자의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77-294.
- 김희은 (2014). 국내 대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및 연구동향. 상담학연구, 15(4), 1441-1456.
- 김희진, 주은지 (2018).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감사성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9(3), 799-814.
- 남순현, 양은주, 권정혜 (2013). 사회침투이론에 근거한 온라인 대인관계의 발달단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20(2), 125-151.
- 문의용, 김택호 (2014). 스마트폰 중독자와 인터넷 중독자의 스트레스대처 방식과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대회, 75-87.
- 박명준, 신성만 (2014).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이 인터넷 게임, 사이버섹스,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중독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2), 753-771.
- 박성복, 황하성 (2014).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 한국언론학보, 58(4), 289-311.
- 박순주, 권민아, 백민주, 한나라 (2014).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5), 289-297.
- 박용민 (2010).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성만 (2015). 한국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상담학회, 16(3), 51-65.
- 서강상담연구 제10권 (2017).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성미현, 남혜리 (2017).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유형, 대인관계 능력, 자존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2), 61-70.
- 손미라 (2018).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관계 유능성이 스마트폰 및 인터넷

- 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27(1), 74-84.
- 손병덕, 성문주, 백은령, 이은미, 최은화, 정정호, 송현아 (201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 판. 서울: 학지사
- 송가미, 박희현 (2016). 직장인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3, 113-131.
- 송기인 (2013).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자의 가치구조 비교. 광고 PR 실학연구, 6(3), 7-34.
- 신연섭, 이봉건 (2016).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공격성의 관계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45, 61-84
- 신성만, 김주은, 오종현, 구충성 (2011). 청소년의 실존적 영적안녕감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613-1628.
- 안주아 (2016).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와 중독. 언론과학연구, 16(4), 128-162.
- 안선경, 정여주 (2016).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719-741.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태정, 김석선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4(2), 127-135.
- 유형근, 박선하 (2018).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9(2), 195-209.
- 유하은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해진 (2009).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대학생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 한국방송학보, 23(5), 173-216.
- 이경미, 조한익, 정기수 (2015).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1), 461-486.
- 이기학, 조영아 (2006). 2005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세상담연구, 22. 연세대학교 상담센터.
- 이연규, 최한나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4(2), 21-42.
- 이종환, 임종민, 손한백, 곽호완, 장문선 (2016). 행동중독 준거기반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25-443.
- 이지혜 (2012). 동기강화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자기통제력, 우울/불안,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학식, 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서울: 범문사
- 이현호, 홍지영 (2018). 학교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적 욕구와 조직지원인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2), 173-194.
- 임윤선 (2013). 성인애착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존재감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희 (2015).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우울, 자아존중감, 충동성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여옥 (2017).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대

- 인관계능력과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7), 235-255.
- 장혜진, 전영자 (2016). 대학생이 지각하는 내·외향성과 대인관계만족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5(2), 137-152.
- 정민선, 김현미, 권현용 (2012). 청소년의 기본 욕구충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0(1), 159-174.
- 정숙희, 김재영, 류수정, 신성만 (2015). 기독교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조절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4), 243-273.
- 정윤미, 김완일 (2016).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0), 385-410.
- 차미희 (2013).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Mattering, 자존감의 매개효과 비교: 사회적 단절 모델을 바탕으로.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최한나, 임윤선 (2013). 한국판 대인존재감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3), 1699-1715.
- 최현 (2018). 대학생의 스마트폰과 SNS 과다 사용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목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2).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5), 1005-1015.
- 황가희, 이인혜 (2016).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683-697.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 한나리, 이동귀 (2010).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37-156.
- 한자연 (2017).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수용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rnett, J. J. (2007). Suffering, selfish, slackers? Myths and reality about emergi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1), 23-29.
- Bell, N. J., McGhee, P. E., & Duffey, N. S. (1986). Interpersonal competence, social assertiveness and the development of humour.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1), 51-55.
- Bian, M., & Leung, L. (2015). Linking loneliness, shyness, smartphone addiction symptoms, and patterns of smartphone use to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3(1), 61-7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
- Chen, J. S. (Ed.). (2012). *Advances in hospitality and leisure* (Vol. 8). Emerald Group Publishing.
- Chow, C. M., Ruhl, H., & Buhrmester, D. (2013). The mediating role of interpersonal competence between adolescents' empathy and friendship quality: A dyadic approach. *Journal of adolescence*, 36(1), 191-200.
- DeCarlo, L. T. (1997). On the meaning and use of kurtosis. *Psychological Methods*, 2(3), 292-307.
- Demirci, K., Akgönül, M., & Akpınar, A. (2015). Relationship of smartphone use severity with sleep quality, depression, and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2), 85-92.
- Elliott, G. C. (2009). *Family matters: The importance of mattering to family in adolescence*. John Wiley & Sons.
- Elliott, G. C., Cunningham, S. M., Colangelo, M., & Gelles, R. J. (2011). Perceived mattering to the family and physical violence within the family by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32(8), 1007-1029.
- Elliott, G. C., Kao, S., & Grant, A. M. (2004). Mattering: Empirical Validation of a Social-Psychological Concept. *Self and Identity*, 3, 339-354.
- Erikson, E. H. (1963). *Youth: Change and challenge*. Basic books.
- Griffiths, M. (2005). A "components" model of addiction with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Journal of Substance Use*, 10, 191-197.
- Holmbeck, G. N. (1997). Toward terminologic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Examples from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4), 599-610.
- Koesten, J., & Anderson, K. (2004). Exploring the influence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cognitive complex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adolescent risk behaviors. *The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4(2), 99-121.
- Nelson, D. R., Hammen, C., Daley, S. E., Burge, D., & Davila, J. (2001). Sociotropic and autonomous personality styles: Contributions to chronic life str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1), 61-76.
- Niemz, K., Griffiths, M., & Banyard, P. (2005). Prevalence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correlations with self-esteem,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 and disinhibi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8(6), 562-570.
- Rayle, A. D. (2005). Adolescent gender differences in mattering and wellness. *Journal of adolescence*, 28(6), 753-76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 McCullough, B. C. (1981). Mattering: Inferred significance and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Research in community & mental health*.
- Samaha, M., & Hawi, N. S. (2016).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stress,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lif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7, 321-325.
- Shaffer, H. J., LaPlante, D. A., LaBrie, R. A., Kidman, R. C., Donato, A. N., & Stanton, M. V. (2004). Toward a syndrome model of addiction: Multiple expressions, common etiology.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2(6), 367-37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itzberg, B. H., & Cupach, W. R. (1989).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 Swann, W. B. (1983). Self-Verification: Bridging Social Reality into Harmony with the Self. In J. Suls & A. G. Greenwald(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pp.33-66). Hillsdale, NJ: Erlbaum.
- Taylor, J., & Turner, R. J. (200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mattering to others for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0-325.
- Thomas, S. P. (2011). What is mattering and how does it relate to mental health?.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2(8), 485-485.
- Young, K. S., & Ro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 25-28.
- 원 고 접 수 일 : 2018. 10. 24.
수정 원고접수일 : 2018. 12. 26.
최종 게재결정일 : 2018. 12. 27.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ttering

Jusuk Song¹⁾ Kisan Park¹⁾ Ye In Kim¹⁾ Heerak Choi²⁾ Sung-Man Shin¹⁾

¹⁾Handong Global University

²⁾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mattering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survey using interpersonal competence, mattering and smartphone addiction scale was conducted among 430 college students in Pohang area in South Korea. The mediating effect and structural model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d AMOS 20.0 program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egative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and positive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mattering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Second, mattering was proven to completely mediate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This study had an implication in that it reveal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martphone addiction with using Shaffer's Addiction Syndrome model and it confirm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ttering and addiction. Based on the results,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personal competence, Mattering, Smartphone addiction*